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4권 제3호(2020년 12월) doi : 10.25153/spkom.2020.24.3.005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20 ; 24(3) : 49-56 pISSN : 1226-7066 eISSN : 2713-9360

한의학교육에 대한 한의대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정선형[1)] · 김정필[1)] · 강유정[1)] · 정혜인[1)] · 김경한[2)]*
[1)]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학부생)
[2)]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A Survey of Recognitions and Satisfaction with Educa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eon-Hyung Jeong[1)], Jeong-Pil Kim[1)], Yu-Jeong Kang[1)], Hye In Jeong[1)], Kyeong Han Kim[2)*]
[1)]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students' recognitions and satisfaction with educa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urthermore, we would like to provide basic data to help set the direction for future Korean medicine education.

Methods : The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referring to previous study and distributed to Korean medicine students asking students' satisfaction about education, satisfaction level by subjects, dissatisfaction reason about education. 424 cases were collected, and response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Results : The score of overall satisfaction of students was 2.83 on average. There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in satisfaction depending on respondents'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cademic year, admission type and other major experience. Clinical Korean medicine and Western basic medicine were both found to be high in satisfaction, necessity, and necessity of expanding the number of classes. 'Curriculum which makes clinical treatment difficult after graduation' was most pointed out as the cause of dissatisfaction with the curriculum.

Conclusions : To solve students' dissatisfaction with education, It's necessary to omni-directionally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lso, it is demanded to improve the environment by gathering and reflecting the students' opinions continuously.

Key words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tudent education satisfaction, Korean Medicine education

• 접수 : 2020년 12월 4일 • 수정접수 : 2020년 12월 17일 • 채택 : 2020년 12월 25일
*교신저자 : 김경한, 549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61,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화 : 063-290-9031, 팩스 : 063-291-1240, 전자우편 : solip922@hanmail.net

Ⅰ. 서 론

한의학의 역사는 길지만 근대적 형태의 학문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 과정에서 서양의학적 지식과 연구방법이 유입되었고, 서양의 분과체계를 도입해 한의학의 분과화,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부터는 각 분과들의 학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분야의 연구 및 교육 인프라를 갖춰나갔다.[1] 이처럼 교육 체계를 갖춰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초와 임상과목 사이의 연계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2]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교과서를 들 수 있다. 한의학 교과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단순히 나열되었던 경험적 지식을 추상화 및 체계화 하는 과정을 거쳐 기술되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이 이론과 임상 간 괴리를 느끼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3]

예방과 치료, 기초와 임상, 실험 및 실습의 균형 그리고 과목 간 연계 강화 등은 임상에서 의료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2]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시대로, 많은 것들을 과학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이에 따라 환자들도 한방 진료 및 치료 행위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설명을 원하고 있다.[4] 따라서 한의계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기존의 한의학 이론과 임상과목에 대한 내용을 통합하여 표준화된 교육을 하고자 한다. 그에 맞춰 교육 방식도 기존의 지식전달 방식에서 학생이 직접 실습하여 임상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학생들이 한의사로서 보편적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한다.[5]

이러한 한의학교육의 개편은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25(Korean medicine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2021, 이하 KAS2021)'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에 따르면 KAS-2021은 기존 한의학 교육과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인증기준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새로이 적용될 예정이다. KAS2021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의 기본의학교육 국제표준(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2015)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그 이상의 수준을 충족하는 한의학 교육을 만들고자 한다.[6]

한평원은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전국 12개 모든 한의과대학에 대하여 평가 인증을 완료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10년 이내에 실시한 한의과대학 수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연구(2012년[7], 2016년[8])에 따르면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5점 만점에 각각 2.64점, 2.44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9년 상지대학교에서 실시한 1학기 재학생 교육만족도 설문 조사[9]에 따르면 전체 재학생의 만족도 평균인 3.44에 비해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는 3.26으로 단과대학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평원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KAS2021과 같은 새로운 평가인증기준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학생집단의 의견들을 참고하여 보면 교육에 대한 한평원의 평가와 학생집단의 평가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AS2021의 대두, 교육과정 개편 등의 변화에 있어서 학생들은 교육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교육만족도, 불만족이유를 조사하고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를 알아본다. 또한, 교과영역별 만족도, 필요도 그리고 해당 영역의 확대 및 축소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앞으로 한의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방 법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2020년 현재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작성한 온라인 설문지 링크를 각 학교 카카오톡 공지방에 배포하여 2020년 8월 5일부터 2020년 8월 10일까지 응답을 수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는 한 문항이라도 답변하지 않으면 제출되지 않도록 구성하였고, 중복 응답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분석항목 및 평가기준

설문 문항은 유사한 주제의 선행연구[7)8)]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성별, 연령대, 학교 및 학년, 출신계열, 응시전형, 타 학교 재학여부와 같은 기초자료를 조사하였고, 교육만족도 7문항, 불만족 사유 1문항, 교과목별 만족도 4문항, 자유의견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과정 만족도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교육과정 구성, 교육자, 강의와 실습, 평가, 학생활동, 시설 및 환경 등으로 분류하였다. 불만족 사항은 '졸업 후 임상 진료가 어려운 교과과정 구성', '강의 내용 및 방법의 문제', '과목간 연계성 및 체계성 부족', '유급제도 운영', '실험 또는 실습의 부족', '학교, 병원 등 교육 시설 및 환경의 미비',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 '과도한 수업시수' 등 9가지로 구성하였다. 총 9가지 선지 중 2가지를 복수 선택하도록 하고, 추가로 기타 의견을 수집하였다. 교과목별 만족도는 먼저 기초의학과목, 기초한의학과목, 임상과목, 인문사회의학으로 교과목을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각 교과목 별 만족도, 필요도, 확대필요성 문항을 추가 구성하였다. 교육과정 만족도와 교과목별 만족도 평가에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리커트 척도에서 '1점'은 매우 불만족(매우 불필요/매우 낮음)을, '5점'은 매우 만족(매우 필요/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최초 작성한 설문지로 총 7인에게 사전 설문을 실시하고 피드백을 받은 결과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이 많아 '배우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추측하여 평가'라는 안내를 교과목별 만족도 문항에 추가하였다.

3. 통계분석

응답의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0 for Windows (IBM, USA)을 이용하였고, 배경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의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실행하였다.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Ⅲ. 결 과

1. 참여자의 특성

총 424건의 응답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60.85%인 258명이 남성이었고, 39.15%인 166명이 여성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만 23.16±3.44세였다. 응답자의 학교는 원광대학교(77명, 18.16%)가 가장 많았고, 대구한의대학교(60명, 14.15%), 대전대학교(46명, 10.85%)가 그 뒤를 이었으며 동신대학교(12명, 2.83%)가 제일 적었다.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다른 학년에 비해 본과 4학년(47명, 11.08%)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응답자의 70.05%(297명)는 자연계열, 29.95%(127명)는 인문계열 출신이며, 44.34%(188명)는 수시, 52.36%(222명)는 정시, 그리고 3.30%(14명)는 편입 전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34.20%(145명)는 한의과대학 진학 이전에 타 전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교육과정 만족도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만족도 측정을 '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교육과정 구성', '교육자(교수)', '강의와 실습', '평가', '학생활동', '시설 및 환경' 등 7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2.83±1.08로 보통(3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보통 수준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2.68±1.10로 전반적인 만족도 외 6가지 범주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3.02±0.08)이 남학생(2.71±0.07)에 비해, 예과 학생(3.25±1.02)이 본과 학생(2.60±1.04)에 비해 그리고 수시 전형(3.03±1.10)이 정시 전형(2.68±1.0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전공 경험이 있는 경우(2.58±1.06)는 없는 경우(2.96±1.07)에 비해 비교적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와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Respondents

Classification		N(M±SD)	%
Total		424	100.00
Gender	Male	258	60.85
	Female	166	39.15
Age(years)	(M±SD)	23.16±3.44	
School	Gachon Univ.	21	4.95
	Kyunghee Univ.	38	8.96
	Daegu Haany Univ.	60	14.15
	Daejeon Univ.	46	10.85
	Dongguk Univ.	34	8.02
	Dongshin Univ.	12	2.83
	Dong-Eui Univ.	41	9.67
	Pusan National Univ.	19	4.48
	Sangji Univ.	15	3.54
	Semyung Univ.	33	7.78
	Woosuk Univ.	28	6.60
	Wonkwang Univ.	77	18.16
Academic Year	Preparatory course(1)	72	16.98
	Preparatory course(2)	76	17.92
	Freshman	76	17.92
	Sophomore	87	20.52
	Junior	66	15.57
	Senior	47	11.08
Major (High school)	Liberal Arts	127	29.95
	Natural Science	297	70.05
Admission type	Early decision	188	44.34
	Regular decision	222	52.36
	Transfer Admission	14	3.30
Enrolled other colleges prior to entrance to Korean Medicine school	Yes	145	34.20
	No	279	65.80

N : Number of respondent,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자연계의 경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able 3).

3. 계열별 만족도

만족도는 임상한의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55±0.94), 기초한의학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2.85±1.10). 필요성은 기초의과학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4.49±0.70), 의료인문학에서 제일 낮게 조사되었다(3.47±1.05). 시수 확대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계열은 임상한의학(3.74±1.04), 확대 필요성이 가장 낮은 과목은 기초한의학(2.65±1.08)으로 나타났다(Table 4).

4. 불만족 사항

불만족 사항은 '졸업 후 임상 진료가 어려운 교과과정 구성', '강의 내용 및 방법의 문제', '과목간 연계성 및 체계성 부족', '유급제도 운영', '실험 또는 실습의 부족', '학교, 병원 등 교육 시설 및 환경의 미비',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 '과도한 수업시수' 등의 9가지 선지로 구성하여 1순위와 2순위로 복수응답 하도록 하였다. 이외 불만족 사항에 대한 기타의견을 추가로 수

Table 2. Students' Satisfaction for Korean Medicine Education by Categories

Classification	M±SD*
Overall satisfaction	2.83±1.08
Satisfaction on the Curriculum	2.68±1.10
Satisfaction on the Professors	2.75±1.11
Satisfaction on the Lecture and Practical sessions	2.78±1.06
Satisfaction on the student activities	2.77±1.14
Satisfaction on the student activities	2.91±1.08
Satisfaction on the facilities and environment	2.78±1.23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 five-point Likert scale

집하였다. 불만족 사항에서 1순위는 2점, 2순위는 1점으로 점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전체 점수 대비 해당 항목 점수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졸업 후 임상 진료가 어려운 교과과정 구성'(297점, 23.6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의 내용 및 방법의 문제'(251점, 20.00%), '과목간 연계성 및 체계성 부족'(212점, 16.89%)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 기타 의견으로는 '유의미한 실습 시수를 늘려야 함', '병원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등의 실습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Table 5).

Ⅳ. 고 찰

KAS2021의 대두, 교육과정 개편 등의 변화의 기로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과목 계열별 만족도, 교육과정에서 불만족 사항 등을 설문 조사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2.83±1.08로 보통(3점)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조사한 2012년의 선행연구에서는 평균 2.69[7], 2016년의 선행연구에서는 2.44[8]인 것을 참고했을 때, 현재 2020년 한의과대학 재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과 2016년과 비교하면 소폭의 증가는 있었으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과대학생의 교육만족도는 평균 2.6 정도[10]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만족도 외에 6가지 항목에서는 모두 보통(3점) 수준 이하의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활동'에서는 2.91±1.08로 항목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교육과정 구성'에서는 2.68±1.10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로 평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재학 중인 학년과 한의대 입학 전 타 전공 경험 여부에 있어

Table 3. Overall Satisfaction for Korean Medicine Education by Main Variables

Classification		M±SD	t	p-value
Gender	Male	2.71±0.07	-2.94	0.003
	Female	3.02±0.08		
Academic year	Preparatory course	3.25±1.02	6.15	<0.001
	Freshman~Senior	2.60±1.04		
Major (High school)	Liberal Arts	2.94±1.02	1.46	0.144
	Natural Science	2.78±1.10		
Admission type	Early decision	3.03±1.10	3.30	0.001
	Regular decision	2.68±1.02		
Enrolled other colleges prior to entrance to Korean Medicine school	Yes	2.58±1.06	-3.46	<0.001
	No	2.96±1.07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4. Satisfaction level by subjects

Classification		M±SD*
Satisfaction	Western basic medicine	3.41±1.03
	Basic Korean medicine	2.85±1.10
	Clinical Korean Medicine	3.55±0.94
	Medical humanities	3.17±1.01
Necessity	Western basic medicine	4.49±0.70
	Basic Korean medicine	3.84±1.11
	Clinical Korean Medicine	4.46±0.76
	Medical humanities	3.47±1.05
Necessity of Expanding the number of classes	Western basic medicine	3.61±1.07
	Basic Korean medicine	2.65±1.08
	Clinical Korean Medicine	3.74±1.04
	Medical humanities	2.70±1.09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 five-point Likert scale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에 있어서 예과생은 평균 3.25±1.02로 본과생 평균 2.60±1.04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타 전공 경험 여부에 있어서는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2.58±1.06으로, 타 전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만족도 2.96±1.0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의과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을 입학한 학생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 교육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다는 선행연구[11]와 의전원생이 의대생에 비해 DREEM(Dundee Ready Education Environment Measure)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선행연구[12]를 참고하여 보았을 때 정 반대의 결과이다. 또한, 의과대학의 경우 학업과 학습에 대한 긍정도가 학년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12]와 비교해보면 한의과대학의 경우 정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추후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과대학의 설문 결과[11][12]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의 교과목 계열별 만족도를 살펴봤을 때 만족도는 임상한의학에서 3.55±0.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한의학에서 2.85±1.1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필요성은 기초의과학에서 4.49±0.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료인문학에서 3.47±1.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수확대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임상한의학에서 3.74±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한의학에서 2.65±1.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5. Dissatisfaction reason about Education

Classification	Score	%
Curriculum which makes clinical treatment difficult after graduation	297	23.67
Problems with lecture content and methods	251	20.00
Lack of inter-subject connectivity	212	16.89
Operation of the Dropout system	108	8.61
Lack fo experimentation and practice	106	8.45
Lack of facilities and environment	103	8.21
Lack of objectivity and fairness in evaluation	86	6.85
Excessive number of classes	64	5.10
Others	28	2.23
Total	1255	100.00

임상한의학에 비해 기초 한의학에 대한 만족도와 시수 확대 필요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만족도, 필요성, 시수확대 필요성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기초의과학과 임상한의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한의학도 근거중심의학(EBM)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 효과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13]. 이러한 과정에 기초가 되는 기초의과학 지식의 필요성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상한의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기초한의학보다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상한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불만족 사항에서 나온 다수의견중 하나인 '과목간 연계성 및 체계성 부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한의과대학 재학생의 불만족 사항을 조사한 결과 '졸업 후 임상진료가 어려운 교과과정 구성'이 2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강의 내용 및 방법의 문제', '과목간 연계성 및 체계성 부족'이 각각 20.0%와 16.9%로 뒤를 이었다. 이들 모두 전체 응답 비율에서 15%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 외의 사항들은 모두 10% 미만의 응답률을 차지해 위의 세 가지 사항이 교육과정 중 주요 불만족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외 교육 불만족 사항의 기타 응답으로는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간 격차를 줄여야함', '병원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유의미한 실습 시수를 늘려야 함' 등의 공통된 의견들이 있었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을 통한 기초과목과 임상과목간의 연계성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실습 교육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시도된 만족도 조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게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 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고 계열별 만족도, 불만족 사항 등 만족, 불만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조사하여 KAS2021의 대두와 교육과정의 변화[6]에 있어서 학생들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표본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결과가 전체 한의과대학 학생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저학년의 경우 설문 시 배우지 않은 과목들을 추측하여 평가해야 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온전히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설문조사 혹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결 론

전국의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본과학생들의 만족도가 예과학생들의 만족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전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타 전공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교과목 계열별 조사에서는 만족도 부문에서 임상한의학이 가장 높게, 기초한의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필요성 부문에서는 기초의과학이 가장 높게, 의료인문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수확대의 필요성 부문에서는 임상한의학이 가장 높게, 기초한의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타 불만족사항에서는 임상에 적용이 어려운 교과과정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많았으며 강의내용 및 방법, 과목과 연계성이 부족함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의학 교육과정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수집된 자료들을 교육의 질적 개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Lee CY. Understanding current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Preliminary study for Discussion on the identity issue of TKM.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010;24(5):758-769.
2. Lee SD, Han YJ & Shin KW. Ways to Educational Improvement of Korean Oriental Medicine. Kor. J. Oriental Preventive Medical Society. 2004;8(2):99-113.
3. Hong JS, Kang IH, Lee YM, Lee HY, Kang YS. Bridging Basic Knowledge and Clinical Practice in the Educa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 case of Pubescent Angelica usages in Internal Bodily Elements section,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20;33(1):1-9.
4. Lee CY. Discussion on the Issues of the Modernization of the Fundamental Theories and Terms in Korean Medicine.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013;27(5):540-552.
5. Lee JH, Kim BS. Screening of 56 Herbal formulas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n Dementia-related Factors.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18;39(3):28-40.
6.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Evaluation. Korean medicine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2021. 2019.12.
7. Kwon SW, Shin SW, Lim BM. A Survey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Educa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ine. 2012;33(1):1-11.
8. Joo SJ, Eom DM, Song JC. A Research for Recognitions of Korean Medical Student towar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Education.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6;20(3):1-8.
9. The evaluation performance management team of the planning and evaluation office of Sangji University.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integrated education consumer satisfaction survey (enrolled students) 2019. 2019.10.
10. Kim CY, Kim SM, Seo JD, Earm YE, Ahn YO, Kim SG, Chai JY, Lee SH. A Survey of Students' Satisfaction on Med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996;8(2):169-188.
11. Brown T, Williams B, Lynch M. The Australian DREEM:evaluating student perceptions of academic learning environments within eight health science co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11;2:94-101.
12. Park KH, Park JH, Kim S, Rhee JA, Kim JH, Ahn YJ, Han JJ, Suh DJ. Students' percep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medical schools in Korea: findings from a nationwide survey.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15;27(2):117-130.
13. Son MJ, Kim WY, Jeong UM, Park HJ, Han CH. A study of Korean medical knowledge system which Korean medical doctors want.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2;16(3):89-105.